본래 성불해 있다는 걸 믿어야

한 것은 그대로 또 배울 것이 많더란다.

설우 스님은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정견이 바로 서야 하고 둘째는 믿음이 확고하고 확신이 있어야 하며, 셋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발심이 돼야 하고 넷째는 그 발심으로 인해 내가 얻은 공덕이 있다면 이웃들에게 회향해야 합니다."

정견이란 모든 생명세계는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나 벌레는 서로 어울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명을 지탱해나가고 있으며, 모든 생명세계는 연기 속에서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기법을 바로 아는 것이 정견이다. 연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은인(恩人)으로 생각해야 하고, 은인으로 생각하면 모든 관계가 은혜로울 수밖에 없단다.

"이 모든 생명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본래 성불돼 있는 것'임을 스스로가 믿어야 합니다. 섬진강 연어가 섬진강을 떠나서 태평양을 지나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삼 년 만에 다시 섬진강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무슨 이정표가 있고 팻말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성이 있어 돌아올 줄을 아는 것입니다. 기러기는 스스로 북쪽을 찾아갈 줄 알아요. 사람도 이기심과 욕망과 대립심과 분별심으로 자기 진성(眞性)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능적으로 능력적으로 부처 자리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은 원래 구족돼 있기 때문에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구하고 닦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고, 이 법이 굉장히 귀중하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발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보리심이라 하지요. 발심이 되면 보리심으로 안락하고 기쁘고, 지혜로 회향하게 돼요. 발심이 되면 축생을 보아도 자기 본래 진성자리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봐도 다 전부 그것이 공부가 됩니다. 발심만 되면 3일 만에도 성불할 수 있고, 발심만 잘 되면 그것이 그대로 회향이 됩니다. 회향하는 마음은 원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회향은 밖으로 드러나고 분출돼야 합니다. 회향은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로 말하면 봉사활동이 되겠지요."

진정한 발심이 어떤 것인지 여쭈었더니 설우 스님은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사십대 후반 때 회생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몸이 아팠고 오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

"부처님께 내 공부가 잘못됐음을 참회도 하고 그랬지.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도 보고 어록도 보았는데, 그때의 발심이 참발심이었던지 보는 것이 전부 그대로 이해가 되고 긍정적이고 모든 법에 막힘이 없이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진정으로 내 자신을 관찰하는 공부가 부족했고 껍데기공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투병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느낀 것이 있다면 공부는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법인이 오롯하게 공부거리로 남더란다. 5년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자연 음식과 자연요법으로 치유하면서 병고를 이겨냈다. 은사스님의 "한 세상 안 난 셈치고 공부하라"는 그 말씀이 무아의 사상과 직결되는 것임을 그때야 알았단다. 불법이 진정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법이고 가장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법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이렇게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회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발심이 저절로 되더란다.

법인정사에서는 특별히 참선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양대학에서 부처님의 정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나면 그 후 백일 공부기도를 시키는데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지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불지촌'은 법인정사의 봉사단체인데, 생활이 어려운 백오십명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등 이웃과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스님을 비롯한 법인정사 신도들에게도 많은 마음공부가 된단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의 현 위치를 알고 바라보게 만들고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베풀어야할지를 깨닫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공부고 기도란다. 법당에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설우 스님의 철학이다.

설우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가 돼야 하는데, 절에 가서 큰스님 법문 듣고 특별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공부라 여기는 것이 한국 불자들의 큰 병"이라고 지적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를 위한 공부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설우 스님이 병고 속에서 온 몸으로 체득한 산공부인지라 참으로 귀중하게 다가왔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가 우물에 눈을 져다 붓는 공부인지 우물에 흙을 져다 붓는 공부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상을 내는 공부를 할 것인지 상을 지우는 공부를 할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0. 백련사 조실 도봉 스님

선학원 창립 주역… 교육 · 의료 · 복지 사업 중요성 강조

도봉 스님(道峰本然; 1873~1949)은 만공 · 용성 · 혜원 · 석두 · 남전 · 상월 스님과 함께 선학원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이다. 불교의 원리는 선리(禪理)를 탐구하고 선풍(禪風)을 진작하는데 있으므로 승속에 구분 없이 선학을 가르쳐 불법의 정통을 살리자고 남전 · 석두 · 도봉 스님 세 분이 거금을 내어 시작했다. 그런데, 곧이어 불교정화운동까지 떠맡게 되어 홀로 떨어져 서대문구 행천동에 관음사라는 조그마한 절을 가지고 있다가 백련사 조실이 되신 분이다. 불교의식에 밝아 누구도 조석예불에 빠지거나 사시마지에 빠지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눈이 빠지도록 나무랐던 분이다.

선학원 행사 때는 의례히 빠지지 않고 나오셨는데, 남전(석주스님의 은사), 적음(한약방을 하시면서 선학원 뒷바라지 하시던 분) 스님이 돌아가시면서부터는 발걸음을 자주 하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선학원이 원래 선학연구원과는 사뭇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서정희, 여운형, 신명균, 김법린 등 애국지사들이 드나들며 독립운동을 할 때는 호국호민의 뚜렷한 법통이 살아 있었어. 그런데, 대처 비구가 갈라지면서 비구승 본부가 되면서부터는 공부하려는 생각은 없고 모두 절 뺏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지 않았지."

스님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선객(禪客)이 있으면 가능한 한 종단분리에 관여하지 말고 공부에만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처님은 왕궁도 버리고 출가하셨는데, 멀쩡한 사람이 남의 절 빼앗아 사업 할려고 출가해. 그런 생각 있으면 서울 올라오지도 말라고. 불교를 정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불교를 아는가. 박 마리아 말만 듣고 저렇게 유시(諭示)를 하고 있으니 이제 저 영감은 말할 것도 없고 뒤에서 부채질 한 머저리들까지 모조리 맞아 죽을 것이야."

"스님,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한번 죽으면 말지, 두 번 죽느냐. 불교는 어떤 사람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야. 일체중생을 위한 종교야."

그 큰 눈을 부릅뜨며 열변을 토하시면 정상(頂上) 육계(肉?)에서는 빛이 반짝 반짝 난다.

"정화(淨化)는 해야 되지. 절 안에서 가정살림을 해서는 안되지. 그러나 그들 숫자가 7000명이 넘으니 그 가족 4촌 6촌까지 합하면 30만명이 넘네. 이들을 쫓아낼 구멍을 만들고 나서 정화해야 할 것 아닌가."

당시 가정을 거느린 스님의 숫자가 700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많은 스님들의 원근 친척들이 불교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야. 첫째는 학교사업이야. 학교를 많이 만들어 학교사업을 해 가면 인재도 양성하고, 취직도 시키는 것이야. 학교 하나가 생기면 1만 명은 먹여 살릴 수 있거든.

둘째는 의료사업이야. 병원과 약방을 만들어 차례로 배출되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쳐 그곳에 넣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은가.

셋째는 복지사업이야. 양로원, 고아원을 만들어 부모 없는 자식, 자식 없는 부모들을 절에서 수용하는 것이야.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1200대중이 다른 사람인가. 몇 사람을 빼 놓고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던 단체가 아닌가. 그러니까 절은 스님들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신심 있는 신도들에게 맡겨서 이런 일을 하게하고 중은 도(道)만 닦고 포교만 하는 것이야. 중이 절 살림해서 돈 만지게 되면 오늘 비구가 내일 대처가 되게 되어 있어. 우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도들이 가만 놓아두지 않는단 말이야."

전국신도회 서대문법당에서 구두 닦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 때는 재(齋)만 지내면 떡 과일 밥을 가지고 오셔서 먹이고, 어린이 법회를 구성하여 노래 부르고, 춤추고, 뛰고 놀면, "진작 불교가 저렇게 되어야 했어" 하고, 가까운 신도들을 데리고 와서 청법하게 했다. 그래서 차도균을 중심으로 수많은 연예인들이 서대문 법당에 오게 되었고, 마침내는 관음사 · 백연사에 초하루 법회와 관음 · 지장 법회를 개설해 대중불교에 앞장서기도 했다.

"불교의식은 간단히 한다고 해서 현대화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 즐겁게 하되 신심과 원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초하루, 보름, 18일(지장재일) 법회는 백련사에서 보고, 24일 관음재일 법회는 행촌동에서 보셨는데, 반드시 오전에는 10시부터 시작하여 12시까지 불공(佛供)을 하고 점심 먹고 법문 듣고, 시식을 했다. 그리고 저녁 때는 거리에 노숙자들까지 불러와 밥을 먹이곤 했다.

기축년(윤년)! 국내 삼사순례 및 방생 법회 행사

삼사순례 및 방생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45인승 최신형 관광버스 무료지원
2009년 6월 20일 – 11월 30일 까지

전국 어디든지
순례 방생 행사 모두 지원가능

◇순례지
1 김천 직지사, 황간 반야사, 금산 보석사
2 계룡산 동학사, 갑사, 금산 보석사
3 마이산 탑사, 무주 안국사, 금산 보석사

◇방생지
전국 최고의 방생지 5곳 추천해 드리며
행사용 텐트 2동 현수막 지원
점심공양 장소 모두 제공

금산 인삼 영농 사업 조합
연락주시면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조 합 장 이대근(청암) : 010-3191-5482
금산 인삼 영농 사업조합 : 041)751-3434